

● 일본 윤지영 선교사님과 센겐다이교회의
근황과 기도제목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새로운 장막지를 찾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있어요.

적당한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 장로님들도 저희를 청빙하는
것에 다 찬성하셨는데 현재 목사님이 내년 봄에 은퇴예정이신
데 따로 생각하고 있는 후임자가 있었나봐요. 그곳으로 부임하
면 마키하고도 같이 살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
른 곳에 있으신거 같아요. 아주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연락이 와
서 지금 서로 기도중이에요.

너무 멀어서 동경까지 오려면 차비만 왕복이 4만엔이 들어서 가
게 되면 마키를 못 만나요. 그래서 마키가 너무 울고 있어요. 저
도 인간적으로는 정말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싶어요. 그래서 두달
을 말씀과 씨름했어요.

아직 서로 확답은 하지 않은 상태예요. 교회의 회원수는 센겐
다이교회와 별로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남편이 설교하러 갔는
데 말씀에 목말라하는 갈급함을 느꼈다고 했어요. 땅이 중요하
니까요. 씨앗이 뿌려지면 좋은 땅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
니다. 교회도 낡고 목사관은 없어요.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이지
만 하나님은 퍼펙트하신 분이시니 믿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시면 저희도 그 뒤를 따라야지요.

하나님은 저희 가족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저희
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선하신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요. 하지
만 마키는 아직 이해를 못하고 너무 침울해하고 울고 있어요.

23일부터 대학생여름캠프도 침울한 표정으로 갔어요. 오늘 자
취방으로 돌아가서 28일 아침에 센겐다리로 와요. 19살이고 아
직 너무 어려서 떼어놓고 갈 생각을 하면 저도 마키 생각만 하
면 눈물이 나요.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지금은 1주
일에 한 번은 센겐다이교회로 돌아와서 그나마 견뎠는데 아이
가 너무 외롭다고 우니까 저도 참 힘이 드네요.

마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안
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나고야 자매가 백내장 수술과 녹내장 수술 두 번의 수술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 역시 고령이라 체력의 회복이 쉽지 않네요. 86세의 고령에도 찌렁찌렁한 목소리와 먼거리도 어렵지 않게 걸으시고 10키로 짜리 쌀도 배낭에 메고 시장도 보셨는데 지금은 한번 어지러움증으로 쓰러지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누워만 계신다고 9월 한달간 집에서 정양을 해야 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코로나까지 걸리면 안된다고요. 나고야자매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 19일에는 카쿠 에미코 자매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심한 치매로 요양원에 계셨는데 8월 14일 점심까지 잘 드시고 저녁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광야의 여정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하루 하루 하나님 따르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요.